

오늘의 계시관

행사 (24일)
▲제 94차 광주경제포럼 조찬 세미나=오전 7시 광주 신양파크 호텔 그랜드볼룸. 김경원 삼성경제연구소 상무이사...

제 5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공동혁신도시 이전지구 임직원 초청 시정설 명회=오후 1시35분 광주시청 중회의실.
▲광양만·진주권 광양개발계획 변경 관련, 협의 회=오후 2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상황실.

한 연속과제 및 2007년 신규과제 사업계획 평가= 오후 1시 한화석유사택 영빈관 2층.
▲제 10회 전남도민의 날 및 제 18회 도민생활 체육대회=오후 4시 강진군 종합운동장. 22개 시·군 생활체육동호인 등 2만5천여명 참가 예정. 27일까지.



I love MY student



최 승 자
<담양남초등학교 교사>

9년간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다 순천에서 근무하던 첫째였다. 4학년 담임이 되어 첫날이었다. 분명히 출석부에는 32명인데 출석한 아이들은 31명뿐이었다. 다음날 윤이(가명)가 엄마 등에 업힌 채로 등교하였다. 4학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작은 윤이는 또래보다 두 살이나 많았다.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고, 조그만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왜소증 장애아였다.

윤이야! 한번 보고 싶다

윤이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당시 나는 경력 10년 차, 비록 훌륭한 교사는 아닐지라도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았고, 또 4학년 아이를 둔 엄마였다. 나는 윤이 어머니에게 "제가 화장실을 데리고 다니겠습니다"고 말했다. 그럴 수 없다는 윤이 어머니에게 "내가 윤이와 마음이 통하려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내 아이도 옆 반에 다니고 있고, 난 교사이기 전에 엄마다. 윤이의 학교엄마가 되겠다"고 했다. 윤이 엄마를 설득하고, 윤이에게 나와 친해지고 싶다. 선생님이 학교엄마가 되고 싶다고 다가갔다.

받아주세요.
나는 "제 임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잘 지켜왔습니다."라고 정중히 사양했다.
"선생님이 받지 않으시면, 윤이를 학교 보낼 수가 없어요."
윤이 엄마는 선생님 보약 해 드시고, 윤이 학교엄마 잘해주시라고 말씀을 흐리며 눈물을 흘렸다. 윤이 엄마는 내 사정을 어떻게 아셨을까? 나는 전 해에 유방종양으로 수술을 받았다.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 뿐이었다. 참으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10월 어느 날, 윤이 아빠가 학교로 왔다. 커다란 비닐봉투를 내미셨다.
"남양시를 했는데, 선생님 쪽 고아 드세요." 뒤라고 말할 새도 없이 가버렸다. 종업식날, 윤이와 31명의 아이들에게 감사했다. 1년 뿌린 씨앗이 일곡이 되리라는 기대로 기쁘게 마무리했다.
오후에는 그동안 아이들과 미뤄두었던 윤이네 집으로 향하였다. 내 아이가 보던 책들, 새로 산 물감과 붓을 윤이에게 선물하면서 거절할 수 없었던 '촌지'를 되돌려주는 마음이 가벼웠다.
윤이와의 만남을 통해 나는 장애아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음을 열고 장애 아이를 담임하고,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20여년 교사 경력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촌지! 인간의 마음속까지 날아가 꿰뚫어 보시는 절대자 앞에서 교사로서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윤이야! 한번쯤 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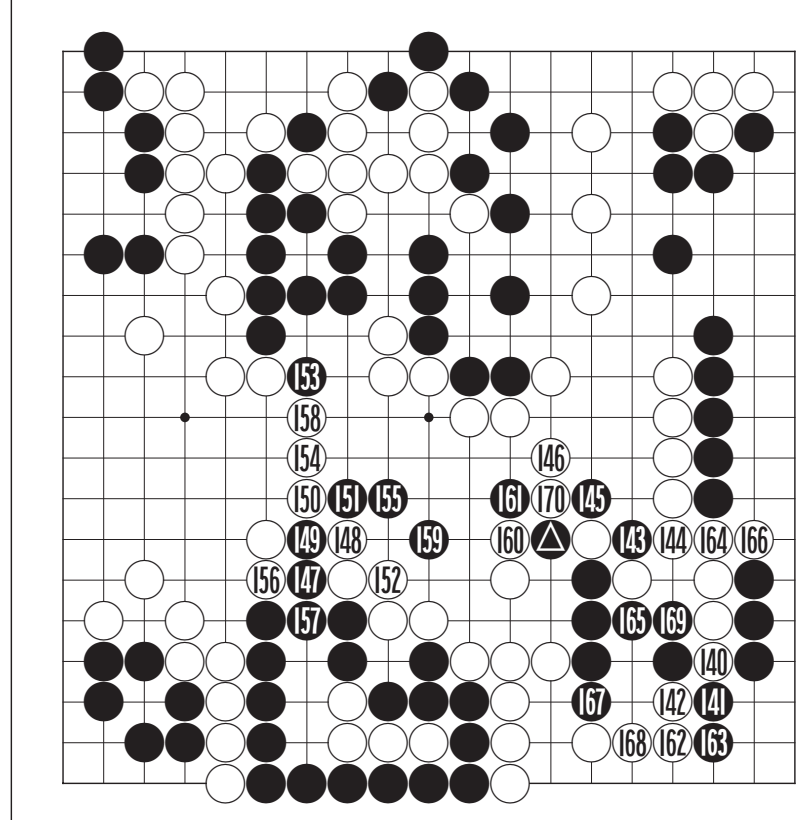
뉴스퀴즈

35. 우리나라 제 10대 대통령이 지난 22일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고령이었던 이 전직 대통령은 3공 시절에 외무부 장관을 거쳐 1976년부터 4년간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10:26 시대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같은 해 제 10대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전두환 군부세력에 의해 이듬해 대통령직을 사임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외교관 가운데 한명으로 꼽히기도 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최규하 ②윤보선 ③이승만 ④박정희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돌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과코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쿼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with 2 columns: Day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Fortune text for each day.



제15회 光日盃
광주 전남 직방비특대회
철벽수비
7보(140~170)
日 장수 9단, 신지 9단 꺾어
일부의 장수 9단이 최근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 열린 제31기 일본명인전 도전 7번기 제5국에서 다카오신지 9단에 216수 끝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4국까지 전적에서 1승3패로 비랑 끝까지 몰렸던 장수 9단은 이 승리로 반격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지난 2003년 60기 본인방전에서 장수 9단에게 타이틀을 탈취한 다카오신지 9단은 이번 명인전을 차지할 경우 일본 랭킹 1위로 등극한다.
명인 타이틀을 비롯 왕좌와 기성 타이틀 보유자인 장수 9단은 명인전을 내줄 경우 랭킹 서열 5위로 추락하게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759>
That's debatable
그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구나
A:I believe it is the only solution to this problem.
B:That's debatable. I think, I can come up with five other solutions as good as that.

오하이오 니혼고 <759>
今回は奮發(ふんぱつ)しちゃおうか
이번엔 큰맘 먹고 사버릴까
A:今年のお歳暮(せいぼ)は、何を贈(おく)ったらいいかしら?
B:そうだね。毎年、商品券(しょうひんけん)やギフトセットじゃね。

니하오 풍구워 <477>
A 不找 B C
A는 B보다 C하지 않다
A 檢新運果有么微的?
B 小时候得了一场病, 幾發癩了,
C 聽着他不比說人話.

한자 이야기 <377>
無碍(무애)
없을 무, 거리낄 애
무애(無礙)는 '거리낌이 없다'는 뜻이다. 거리를 쓰다니면서 민중들 틈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불발을 전하였던 신라의 고승 원효(元曉, 617~686)를 '무애승(無碍僧)'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가 들고 다니던 바가지를 '무애호(無碍瓢)'라고 불렀다.